Print ISSN 1229-688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Online ISSN 2287-7827
Vol. 64, No. 6 (Sep. 2014) pp. 91-101 http://dx.doi.org/10.7233/jksc.2014.64.6.091

튜브형태의 끈(Tube-Shaped String)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안 효 선 · 이 인 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Study on Garment Design Application of Tube-Shaped String

Hyosun An · Inseong Lee+
Docto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4. 5. 9, 심사(수정)일: 2014. 6. 23, 게재확정일: 2014. 7. 27)

ABSTRACT

String, as clothing material, has played a functional, symbolic and decorative role in garment traditionally. The string has a shape of continuous line, which is one of the basic elements for the design: points, lines and sides. It can effectively represent the silhouette by making our vision flow to a certain direction. This study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form of string in a new modern way by developing "Tube-Shaped String" which has an empty hole in the middle. As a creative attempt, the new tube-shaped string can be used for fashion design by applying it to unique shapes, colors, textures, and draping expressions. In a role dimension, this string can become the main fabric material. The method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traditional shape and role of string in the history of garment. Second, it studies modern designers, such as Christian Dior, Ann Demeulemeester, Dolce & Gabbana, and 3.1 Phillip Lim, who have applied the string to their design, and have explored the various potentials of the string in the past four years. Finally,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al analysis, this study creates a new tube-shaped string, applying its own technique to fabricating three garments: jacket, dress, and body suit. As a result, each garment shows unique silhouettes, rich texture and color, and rhythmical movement. The unique silhouettes reflect the shape and movement of different bodies. The texture and color are created through the shades of the string which come from the overlapping strips. The garments come with an unbeatable aesthetic design compared to conventional uniform design. As a new material in clothing, this tube-shaped string can be developed to satisfy the public, which has widely varying tastes in fashion.

Key words: design material development(디자인 소재 개발), fashion design(패션 디자인), string design(끈 디자인), tube-shaped string(튜브형태의 끈)

이 연구는 201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Global Top 5 Projec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Inseong Lee, email: gaby@ewha.ac.kr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패션 유행의 주기는 짧아져 가고 디자인 개발은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대중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급변하는 유행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패스트 패션은 짧은 유행주기를 즉각 반영함과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선택범위와 표현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유사한 소재의 반복적인 사용과 유행 디자인을 모방하는 디테일과 실루엣으로 디자인의 참신함이 부각되지 못하고 패션의 획일화로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의상 소재 개발과 활용 연구를 통한 대중들 개인의 개성 표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의 등장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식의 흐름에서 대중의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복식변화를 이끈 전통적인 의상 소재인 끈을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끈이라는 소재는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점, 선, 면 중 선의 개념으로서 의복에 활용될 때 시선을 일정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시각적 작용과 감거나 조이는 물리적인 작용을 통한 디자인 표현 및 제작이 가능하다. 디자인 소재로서 끈에 대한 연구는 2000년도 이후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선옥[1]은 의복에서 사용되는 끈의 활용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조형미를 연구하였고, 임혜영[2]은 끈 장식에 있어서의 장식적인 특성과 기능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최경희[3]는 끈이 갖는 조형적 가치를 고찰하여 패션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단면이 원형인 전통적인 형태의 끈을 활용한 표현방식에 거의 집중되어 의상의 일부분에서 디자인 표현을 하는데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시도로서 튜브형태의 끈(Tube-Shaped String)이라는 새로운 끈을 의상 디자인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끈 소재의 역할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현대 패션에 와서 끈은 보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튜브형태의 끈은 의상을 구성하는 메인 소재로서 활용되어 현대 패션에서 대중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끈의 형태를 고찰하여 그 역할을 알아보고 현대의상 디자인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재구성함으로써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의상 소재의 개발과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튜브형태의 끈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로, 먼저 끈이라는 소재에 대하여 개념 및 유형을 고찰하고 복식사에 나타난 끈의 형태와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끈의 활용 경향을 고찰하기 위한 실증연구로는 2009년부터 최근 2012년까지 패션 컬렉션 전문 웹 사이트(www.style.com)에 업로드 된 컬렉션에서 'string', 'material', 'fabrication'의 키워드를 입력하여서 나타나는 컬렉션 중 끈에 대한 패션기사가 있는 디자이너를 먼저 선정하고,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10인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순위를 매겨 상위 4명의 디자이너(Christian Dior, Ann Demeulemeester, Dolce&Gabbana, 3.1 Philip Lim)를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대 의상 디자인에 적합한 가운데 빈 공간을 가지는 새로운 튜브형태의 끈을 고안하고 본 연구의 의상 디자인 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의상은 재킷과 원피스, 보디 수트를 포함한 총 3벌의 의상으로 끈이라는 고유한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독창적인 현대복식으로 표현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끈의 개념과 유형

끈은 '물건을 묶거나 꿰는데 쓰이는 노끈이나 줄' 또는 '옷이나 보자기 등에 붙어서 그 자체를 잡아매거나 하는 데 쓰는 물건'을 말하며[4] 끈의 재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들로는 섬유에서부터 철사, 가죽, 나무줄기, 노, 줄, 실, 헝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5][6] 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선의 이미지를 가지는 가늘고 긴

물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묶거나 감은 것, 철사와 같이 둥근 단면이 있는 것, 밧줄과 같이 꼬임이 있는 것, 일정한 폭을 가지는 납작한 띠와 같은 것, 여러 가닥의 가는 실을 엮어 짠 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7], 이는 제작 형태에 따라 크게 실로 짠 형태, 옷감을 잘라 만든 형태, 그리고 소재를 혼합하여 만든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8]. 여러 올의 실을 땋거나 꼬으는 끈의 제조방법은 '브레이드(braid)'라고 부르며 실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구조는 높은 구조적 일체성을 부여하여 손상저항이 강한 특성을 가진다.[9] 이러한 제작 형태는 나무껍질과 짐승 가죽을 그대로 길게 찢은 것 또는 초목의 덩굴을 묶고 맺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 그것을 더 질기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2가닥으로 꼬아 쓰다가 3가닥으로 땋는 엮음새가 되었고 더 나아가 4가닥 이상 짜는 끈으로 발전한 것이다.[10] 브레이드의 제조방법에 의한 끈은 조그마한 장식용에서부터 고중량에 견딜 수 있는 산업용까지 매우 많은 특화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면, 마, 합성 섬유 등의 단사(單絲) 수십 줄을 꼬아 만드는 로프(rope)〈그림 1〉[11]는 유연하여 구부리기 쉽고, 인장력에도 견딜 수 있어 어구, 선구등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곳에 사용된다.[12] 또한 브레이드는 어떻게 꼬임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표면의 무늬가 다르게 형성되어 나타나는데 보통 평평한 것, 물결 모양의 것, 주머니 모양의 것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무늬는 장식용으로 천의 면적에 꿰매 붙여서 자수를 만들거나 경계선 등을 꾸미는데 사용된다.[13] 옷감으로 된 끈은 직물의 신축성, 무늬나 결의 특성을 고려하여 넓거나 좁은 너비로 재단하고 그대로 쓰거나 솔기를 처리하여 사용된다. 고대 중국에서 사용되어 한국 전통 예복에서도 나타나는 대대(大隊)라는 부르는 띠는 비단을 넓게 재단하여 의복위에 둘러 착용하였는데 현대의 서양식 의식용 띠도 이 계통의 것이다.[14] 이보다 나비가 좁고 얇은 직물 장식으로 서양 복식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여자들이 머리를 묶는데 리본(ribbon)을 사용하였는데[15], 주로 실크나 새틴, 벨벳 등으로 만들어진 밴드(band) 형태로, 현대에는 리본 루프나, 나비 모양의 매듭 등으로 장식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16] 소재를 혼합하여 만든 끈의 제작 형태는 주로 장식적인 띠에서 나타난다. 19세기에 남자의 판타롱을 매달기 위해서 사용된 브르텔(bretelles)〈그림 2〉[17]에서 띠는 어깨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형태로 그 위에 자수를 놓아 사용하였다. 그 외에 허리에 물건을 차기 위해 둘렀던 허리띠의 경우, 원래는 허리에 끈 하나만을 매어 무기나 잡은 짐승 따위를 달고 다니며 두 손은 비워두는 풍습에서 점차 띠에 장식을 첨가함으로써 무두질한 가죽에 금, 은, 옥석 따위를 더하여 미적 감각을 강조하는 밸트(belt)를 착용하였다.[18]

끈은 인체위에 착용될 때에 제작된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엮거나, 매듭을 주는 방법으로 조형적 표현을 하였는데 특히 복식에서 끈은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점, 선, 면 중 선의 개념으로 형태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분할하며 독특한 복식미를 표현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복식 소재로서의 끈의 가치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혜영[19]은 끈의 장식성과 기능성에 주목하여 끈 장식을 드레스 디자인에 활용하였고, 이선옥[20]은 끈의 역할을 기능성, 장식성, 상징성, 강조성으로 분류하여 복식에서의 조형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복식의 미학적 가치 연구의 기준이 되는 기능적인 가치, 상징적인 가치, 미적인 가치를 통해 전통적으로 복식에서 나타난 끈의 형태를 고찰해보고자 하였

〈그림 1〉 a Piece of Preserved Rope, 16세기,
메리 로즈 호
- http://en.wikipedia.org

〈그림 2〉 Bretelles, 19세기,
말메종 국립 박물관
- http://www.spectacles-selecti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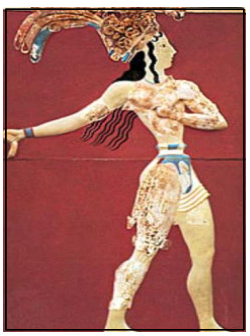
다.[21] 이들 가치는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평가요소로서[22] 각 가치 기준들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 가지 가치 중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가치 표현을 통해 끈의 형태에 따른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복식사에 나타난 끈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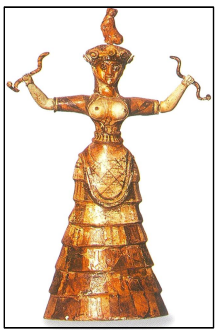
역사적 흐름에서 이상적인 인체에 대한 미의식의 변화는 복식을 통해 나타나며 끈은 이를 표현하고자 복식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 인류 복식의 첫 단계인 원시형 복식에서 끈은 엉덩이 둘레에 두르는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끈은 복식으로써 미적 본능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며 고리 모양만을 착용하기도 하고 그 자체에 어떠한 물체들을 덧붙여 매달기도 하며 수평의 방향으로 신체를 감으며 장식하였다.[23] 고대 크리트 남자들이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1100년에 이르는 동안 지위나 계급에 관계없이 착용하였던 로인 클로드(loin clothe)〈그림 3〉 복식에서는 가죽이나 금속의 끈으로 허리를 졸라매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여밈이 등장하였다. 고대 여성의 복식에서 여성의 몸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서 가슴과 배를 강조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기원전 1800년 이후 크리트 여자들이 착용한 블라우스(blouse)〈그림 4〉는 앞을 여미지 않아 가슴과 배를 드러내고 끈을 내려뜨려 장식하였다.[24] 고대 이집트 여성이 착용하였던 시스 드레스(sheath dress)에서는 드러나는 가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끈을 두 번 감아 묶어 배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투명하게 비치는 드레스를 통하여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위를 드러내었는데[25], 끈을 통해 허리선이나 어깨에서 가슴과 배를 강조하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복식에서 끈은 술(fringe)의 형태를 통해 장식적인 역할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수메르인의 남녀 기본 복식은 단순한 형태의 스커트와 맨틀이었는데 허리에 둘러 입는 스커트인 카우나케스(kaunakes)는 여러 층의 술 혹은 꽃잎 모양의 층이 3단에서 6단으로 이루어진 티어드 스커트(tiered skirt)로 이때 활용된 술 장식이 아시리아에 이르러는 숄(shawl)에 사용되어 술의 길이와 정도에 따라 착용자의 지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전의 풍요와 다산이라는 자연의 미의식과는 전혀 다른 이데아의 반영으로서 완벽한 조화와 비례를 이룬 인체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때 끈은 대칭, 균형, 비례에 바탕을 둔 조화의 법칙을 표현하며 인체부분의 상호간의 올바른 비례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에서 끈은 풍부한 주름 연출을 위해 가슴 부분을 11자나 X자로 묶었는데, 이때 가슴 바로 아래에 두른 끈(strophin)이 가슴을 두 부분으로 올바르게 나누는 것을 통해 여성의 가슴이 아름답다고 인식되었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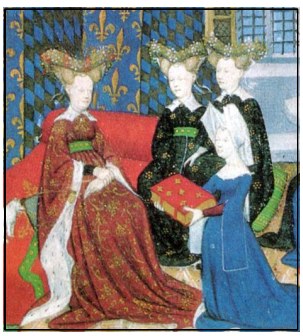
중세시대에 와서는 인체에 대한 수치심으로 관념화된 마른형이 이상적으로 여겨졌는데[27], 복식에서는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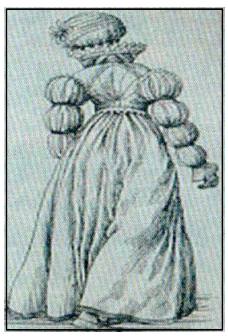
〈그림 3〉
Loin Clothe
-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p. 45



〈그림 4〉
Blouse
- *복식미학 강의 2*, p. 28



〈그림 5〉
Cotehardie
-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p. 135



〈그림 6〉 Mameluke Sleeve
- *현대패션과 서양 복식 문화사*, p. 225

〈표 1〉 복식사에 나타난 끈의 형태와 역할

시대	고 대	중 세	근 세	근 대
복식	로인클로드 블라우스 시스드레스 카우나케스 키톤	블리오 코트아르디 중세바지 샤프롱 터번	코르셋 스토마커 에셀,갈랑	슈미즈가운 엠파이어 드레스 마멜루크 슬리브
형태	끈, 술	띠, 끈	끈, 리본	끈, 리본
▼				
가치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미적 가치
역할	복식조형 여밈	신분상징 신체부위강조		복식장식 신체비례확립 신체변형

교적인 감각의 띠로 신체에 두르거나 늘어뜨렸다. 중세의 대표적인 복식인 블리오(bliaud)와 코트아르디(cotehardie)〈그림 5〉는 골반 부분에 허리띠를 둘렀는데, 이때 띠는 의복에서 가장 비싼 품목으로 신분을 나타내었다.[28] 또한 블리오는 몸통이 헐렁하고 소매통이 넓었기 때문에 뒤나 옆에서 끈을 이용하여 X자로 묶어 여몄는데 이러한 끈의 활용 기법은 남자 복식인 바지에서도 넓은 품을 피트시키고자 전체를 X자로 묶어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났다. 중세의 쓰개인 리리파이프(liripipe)는 후드가 달린 짧은 케이프로 고깔처럼 뾰족한 끝부분을 길게 연장하여 대롱 형태로 늘어뜨렸는데 심한 경우 이 대롱이 바닥까지 닿아 이를 목에 감거나 어깨에 걸치기도 하였다. 리리파이프는 14세기에 이르러 점차 터번 형태로 변화되어 샤프롱 터번(chaperon turban)에서 끈을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나타났다.[29]

근세에 들어서는 상체를 가늘어 보이게 죄는 속옷으로 복식사상 최초로 바스킨(basquine)과 코르피케(corps-pique)의 코르셋(corset)이 고안되었다. 코르셋은 내구력이 있는 가는 원통 형태의 끈을 교차하며 엮는 방법을 통해 실루엣을 변화시켰다. 17세기 말 복식에서는 납작한 리본을 좌우나 상하방향으로 다발을 만들어 장식에 활용하였는데, 스토마커(stomacher)와 페티코트(petticoat)에서 나타나는 나선형의 정교한 리본 장식인 에셀(echelle), 루프 다발의 형태로 의복은 물론 장신구인 구두에도 활용된 갈랑(galant)장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30]

근대의 복식은 신고전주의의 영향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풍 의상으로 변화되어 코르셋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추구되었다. 슈미즈가운(chemise gown)은 가슴 아래에 두른 끈을 통해 H라인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디테일에서는 어깨에서 손목까지 여러 개의 끈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 퍼프형태의 마멜루크 슬리브(mameluke sleeve)〈그림 6〉가 제작되었다.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복식사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끈의 형태는 가늘고 긴 원형의 끈, 술, 띠, 리본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으로는 복식을 여미거나 형태를 조형하는 역할, 상징적으로는 신분을 나타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역할, 미적으로는 복식을 장식하거나 이상적인 비례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대적인 미의식에 따라 허리나 가슴을 조이거나 부풀리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복식사에서 끈이 나타난 대표 복식과 전통적인 끈의 역할은 〈표 1〉과 같이 요약되었다.

Ⅲ.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끈 의상

20세기에 들어와서 복식은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며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중요시되고 있다.[31]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현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전통적인 의상 소재인 끈은 그들의 예술적인 표현의지에 의해 보다 다양한 기법으로 현대 패션에서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4년간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끈 의상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위해 해외 패션 컬렉션 전문 웹 사이트(www.style.com)에서 'string', 'material', 'fabrication'의 키워드를 입력하여서 나타나는 컬렉션 중 끈에 대한 패션기사가 있는 디자이너를 먼저 선정하고, 의상학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끈 소재를 활용하는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3.1 필립 림(3.1 Phillip Lim), 앤 드뮐미스터(Ann Demeulemeester), 돌체앤가바나(Dolce& Gabbana)의 컬렉션을 연구 범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끈의 전통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시도되는 표현 기법을 통한 끈 소재의 역할을 기능적, 상징적, 미적인 가치를 기준하여 알아보았다.

크리스찬 디오르의 컬렉션〈그림 7〉[32]에서는 실크나 쉬폰 소재의 단면이 납작한 리본 형태의 끈이 디자인에 활용되어 나타났다. 2009년 컬렉션에서는 자켓 위에 리본을 내려뜨리면서 반복적으로 루프 형태의 턱을 잡는 터킹(tucking)의 기법을 통해 입체적인 질감을 더하였고, 2010년에는 촘촘하게 짠 니트 가디건 위에 대비되는 질감의 실크 리본을 통과시켜 함께 엮어 나가는 형태의 디테일 표현이 나타났다. 2011년 컬렉션에서는 쉬폰을 가닥 가닥으로 절개하여 만든 끈으로 땋아서 고정하고 그 끝을 내려뜨리는 기법을 통해 움직임에 따라 흩날리는 표현으로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2012년에는 리본을 일정간격으로 나란히 배열하여 스트라이프 무늬의 패턴을 표현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3.1 필립 림의 컬렉션〈그림 8〉[33]에서는 레이온, 울, 실크 소재를 통한 끈과 띠가 모던한 디자인에 부합하는 절제된 디테일로 활용되었다. 2009년에는 뉴트럴한 베이지 컬러의 끈을 일렬로 내려뜨려 H라인의 심플한 실루엣을 표현하였고, 2010년 서스펜더(suspender)를 연상시키는 납작한 띠를 가슴부분에서 교차시켰다. 2011년에는 풀오버 스웨터 위에 같은 소재의 띠를 X자로 짜

〈그림 7〉 Christian Dior
- http://www.style.com

〈그림 8〉 3.1 Phillip Lim
- http://www.style.com

넣어 질감을 더하는 시도가 나타났고, 2012년에는 띠를 일정 간격으로 내려뜨리고 네크라인, 허리에서 고정한 심플한 탑과 팬츠를 통해 스트라이프 패턴을 표현 하였는데 탑의 경우 띠 자체만으로 고정되어 의상으로 착용되었다. 앤 드뮐미스터는 가죽과 메탈 소재의 다양한 굵기의 끈을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매니쉬한 감각의 디자인에 적용하였다.〈그림 9〉[34]. 2009년에는 가죽의 양 끝을 일정간격으로 절개하는 기법을 통해 여러가닥의 밸트를 제작하고 바디스 부분에 착용하여 코르셋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나타났다. 2010년에는 메탈 소재의 끈들을 하이웨이스트 드레스의 가슴부분에 배열하여 목 뒤에서 연결하여 겹쳐지는 끈들을 통해 홀터 네크라인을 표현하였다. 2011년에는 강한 실루엣의 자켓에 술장식이 디테일로 활용하였다. 2012년에는 많은 양의 술을 고정시키지 않고 아래로 늘어뜨려 면을 형성하며 신체를 덮는 드레스가 시도되었다.

돌체앤가바나의 컬렉션〈그림 10〉[35]에서 끈은 신체를 죄거나 여성 고유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형태로 활용되어 의상에서 여성성을 부각시켰다. 2009년과 2011년에는 코르셋이 디자인의 디테일로 나타났는데 이때 X자로 끈들을 교차시키는 기법으로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부각시켰다. 2010년에는 끈들을 땋아 그물 형태로 제작하여 어깨, 팔, 다리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허리부분에서는 끈들을 모아서 촘촘하게 엮어나가는 기법을 통해 잘록하게 표현하였다. 2012년에는 서스펜더 형태의 어깨끈으로 튜브 탑과 하이웨이스트 쇼츠를 연결하였는데 어깨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허리의 가장자리에 블랙컬러의 끈을 나란히 배열하여 시각적으로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도록 하였다.

20세기에 들어 현대 패션에서 끈은 디자이너의 예술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소재로서 각 컬렉션이 추구하는 감성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크리스찬 디오르, 돌체앤가바나, 3.1 필립 림, 앤 드뮐미스터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끈은 〈표 2〉와 같이 배열, 터킹, 땋기, 흩날리기, 교차, 절개, 늘어뜨리기 등의 기법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끈을 나란하게 배열하여 늘어뜨리는 기법을 통해

〈그림 9〉 Ann Demeulemeester
- http://www.style.com

〈그림 10〉 Dolce&Gabbana
- http://www.style.com

〈표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끈의 형태와 역할

디자이너	Christian Dior	3.1 Phillip Lim	Ann Demeulemeester	Dolce&Gabbana
의상	자켓 가디건 스커트	드레스 풀오버 스웨터 블라우스 팬츠	코르셋 드레스 자켓	코르셋 드레스 보디 수트
형태	리본	띠, 끈	끈, 술	끈, 띠
기법	배열, 터킹, 땋음, 흩날림	배열, 교차	배열, 절개, 늘어뜨림	배열, 교차, 땋음
▼				
가치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미적 가치	
역할	의상구성, 실루엣조형	디자인감성강조	질감, 패턴, 디테일장식	

서 면적인 표현을 하는 디자인 시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끈은 의상에서 주요한 디자인 요소로서 활용되어 실루엣을 조형하는 기능적인 역할, 컬렉션만의 고유한 분위기와 디자인 감성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역할, 그리고 의상에서 독특한 질감과 패턴을 표현하고 강렬한 디테일장식을 더하는 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Ⅳ. 디자인 개발

1. 디자인 개발 의도

의상 디자인 개발에 있어 전통 소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통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가치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으로 전통 소재의 형태와 활용을 이해하고 현대적인 미적 감각으로 소재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에서 오늘날까지의 인류의 복식에서 변화하는 복식미를 실현시키는 끈 소재를 통해 현대 대중의 개성을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복식사에서 끈이라는 소재는 주로 기능적이거나 장식적인 목적으로 복식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대 패션에서 끈은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끈이 선으로 작용하는 조이고, 여미는 역할과 함께 끈이 면으로 인식되어 의상을 구성하는 주요한 소재로서 활용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상을 구성하는 끈의 현대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메인 소재로서 끈을 디자인 개발에 활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튜브 형태의 끈을 개발하고 작품에 응용하여 새로운 끈의 활용에 따른 디자인 표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튜브형태의 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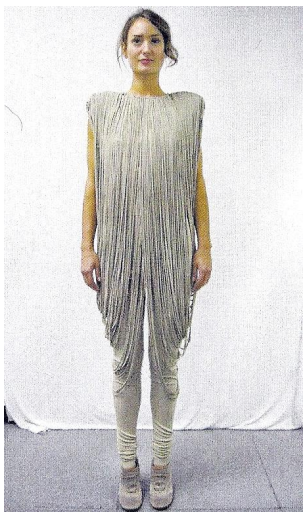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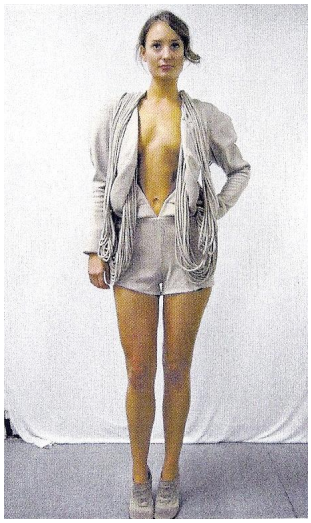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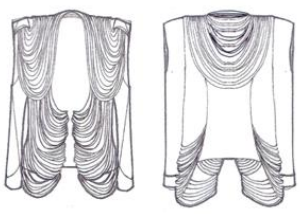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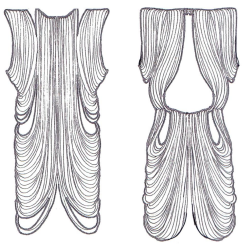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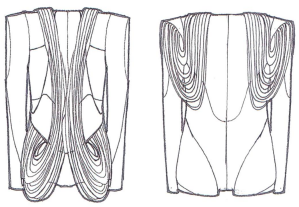
끈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개발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끈을 변화시킨 새로운 튜브형태의 끈을 고안하였다. 튜브형태의 끈의 제작을 위한 원단으로는 신축성이 뛰어난 저지 원단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1.5cm의 폭으로 재단한 후 각 끈들의 끝을 연결하여 한 줄의 긴 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끈의 양면의 가장자리를 서로 맞닿도록 이어 붙여서 폭을 반으로 만들고 끈을 길이방향으로 잡아당겨 늘이면서 열과 스팀을 통해 가공하여 지름 0.5cm의 매우 얇고 탄력적인 끈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튜브형태의 끈은 가운데 빈 공간을 가지는 한 가닥의 긴 끈으로 유연성과 고정성을 동시에 가져 그 자체만으로도 구조적인 형태 조형이 가능한 소재가 되었다. 또한 폭과 색채가 동일한 튜브형태의 끈들은 가운데 빈 공간으로 말미암아 서로 탄력적으로 고정되었는데 이들을 신체 위에서 나란히 배열하여 연결하면 하나의 면으로 인식되어[36] 원단을 대신하여 두르거나 감을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3. 디자인 개발 및 해설

디자인 개발에서는 튜브형태의 끈들이 의상의 메인 소재가 되는 원단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튜브형태의 끈들이 형성하는 원단은 가닥가닥이 따로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며 착용자의 신체와 움직임이 반영되는 유동적인 원단으로 개인의 고유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는 어깨, 팔, 허리에서 이러한 디자인 특성이 반영되도록 끈들을 배열하였다.

〈디자인 1〉의 자켓은 가볍고 신축성이 뛰어난 레이온 저지 소재의 두 그룹의 튜브형태의 끈들로 제작되었다. 윗부분의 끈들은 양쪽 어깨에서 등으로 이어지도록 좌우로 배열하였고 아랫부분의 끈들은 상하로 되감아 올라가는 기법을 통해 앞중심에서 양옆으로 허리를 감으며 착용자의 상체의 곡선을 형태에 반영하였다. 튜브형태의 끈들이 이루고 있는 두 면은 움직임에 따라 좌우와 상하로 이동되며 율동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표 3〉 튜브형태의 끈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디자인 1	디자인 2	디자인 3
구성	자켓	드레스	보디 수트
소재	레이온 저지	레이온 저지	울 저지
컬러	베이지	베이지	파스텔 핑크
사진	- 저자촬영, 2012	 - 저자촬영, 2012	 - 저자촬영, 2012
도식화			
▼			
가치	기능적 가치	상징적 가치	미적 가치
역할	착용방법 및 움직임을 반영하여 형태를 변형	개인의 체형 및 걸음걸이를 강조	입체적이고 율동적인 원단 표현

〈디자인 2〉는 튜브형태의 끈을 활용한 드레스로 자켓과 동일한 레이온 저지 소재의 튜브 끈들이 네크라인과 어깨에서 일직선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하나의 면을 이루도록 제작되었다. 튜브형태의 끈들로 이루어진 면은 착용자의 걸음걸이에 따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며 강한 어깨실루엣과 대비를 이루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독특한 원단으로 표현되었다.

〈디자인 3〉의 보디 수트는 울 저지 소재의 튜브형태의 끈들이 양쪽 어깨에서 마치 띠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다. 두 그룹의 끈들은 서로 대칭을 이루며 수트의 끝자락에서 U자로 방향을 전환하여 양쪽 허리에 고정되었는데 이때 서로 겹쳐지는 가닥의 끈들은 개별적인 단위로 지각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서 시각적 재질감을 형성하여[37] 음영을 통해 표면의 질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띠로 표현되었다. 끈들은 최소한의 고정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가슴 중심부분에서 여미거나 펼치는 형태로 착용자의 기호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자켓, 드레스, 보디 수트의 의상을 통해 나타난 튜브형태의 끈의 역할에 따른 디자인 표현은 〈표 4〉와 같다.

첫째, 튜브형태의 끈들은 최소한의 고정을 통해 신체위에 배열되어 가닥가닥 자유롭게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착용자의 선호하는 착용방법에 따라 이동하며 형태를 변형하는 유동적인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튜브형태의 끈을 활용한 의상은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의상의 실루엣이 다르게 나타나고 개인의 걸음걸이와 같은 특징적인 움직임을 형태에 반영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튜브형태의 끈들이 이루는 원단은 신체에 밀착되어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며 서로 겹쳐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음영과 질감을 통해 독특한 시각적 재질감을 형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원단으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상 디자인 개발 결과 튜브형태의 끈 소재는 부드럽고 유연한 촉감으로 착용자의 신체의 곡선에 따라 형태를 조형하며 자연스러운 쳐짐으로 신체를 감싸는 원단으로 착용되는 것이 나타났다.

Ⅴ. 결론

끈은 인류가 복식생활을 하기 이전에 등장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흐름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의상에 활용된 창의적인 소재이다. 본 연구는 의상 소재로서 전통적인 끈의 형태에 따른 기능적, 상징적, 미적인 역할에 주목하여 새로운 튜브형태의 끈을 통해 의상의 메인 소재로서 끈을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을 늘 함께 고려하는 현대 대중들에게 튜브형태의 끈 소재의 활용은 딱딱하고 획일적인 기성복에서 합리적인 제작방식은 유지하면서도 맞춤복과 같은 착용감으로 소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체형과 개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다. 튜브형태의 끈 소재는 의상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 대중의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후 튜브형태의 끈이 보다 다양한 재료와 활용기법을 통해 비단 의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풍부한 표현을 돕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이선옥 (2004), 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임혜영 (2006), 끈 장식을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최경희 (2010), 끈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니트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학술발표.
4) *새로나온 국어사전* (2000), 서울: 민중서관, p. 453.
5) 이선옥, *op. cit.*, p. 3.
6) 구은경 (2003), 끈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칠예작품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7) 임혜영, *op. cit.*, p. 5.
8) 이선옥, *op. cit.*, pp. 26-29.
9) J. S. Tate, A. D. Kelkar and J. D. Whitcomb (2006), Effect of braid angle on fatigue performance of biaxial braided compo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Fatigue, 28(10)*, pp. 1239-1247.
10)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2002), 서울: 동서문화, p. 2834.
11) 자료검색일 2014. 7. 22, http://en.wikipedia.org/wiki/Rope
12) 이준석 (2003), 차별화 제품 제조공정: 브레이딩, *섬유기술과 산업*, 7(2), pp. 190-204
13) 조규화, 구인숙, 금기숙 (1995), *복식사전 (Fashion Dictionary)*, 서울: 경춘사, p. 223
14) *Ibid.*, p. 4642.

15) *Ibid.*, p. 5060.
16) *패션사전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1991), 서울: 디자인신문사, p. 65
17) 자료검색일 2014. 7. 22, http://www.spectacles-selection.com/archives/expositions/fiche__expo__J/josephine-V/josephine.htm
18)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op. cit.*, p. 4642.
19) 임혜영, *op. cit.*
20) 이선옥, *op. cit.*
21) 김민자 (2008 a), *op. cit.*, pp. 23-26.
22) 김은정 (2008), 전형성이 제품디자인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pp. 29-31
23) 김민자 (2008 a), *op. cit.*, p. 154.
24) 김민자 (2008 b), *복식미학 강의2*, 서울: 교문사, p. 58.
25) *Ibid.*, p. 58.
26) *Ibid.*, p. 60.
27) 김민자 (2008 b), *op. cit.*, p. 65.
28) *Ibid.* p. 66.
29) 배수정, *op. cit.*, p. 135.
30) Francois. Boucher (1992), *그림으로 보는 서양 복식사*, 이순흥 외, 서울: 경춘사, p. 76.
31) 김민자 (2008 a), *op. cit.*, p. 24.
32) 자료검색일 2014. 4. 5, http://www.style.com/fashionshows/detail/S2009CTR-CDIOR
33) 자료검색일 2014. 4. 5,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F2010RTW-PLIM
34) 자료검색일 2014. 4. 5,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S2012RTW-ADEMEULE
35) 자료검색일 2014. 4. 5, http://www.style.com/fashionshows/review/F2009RTW-DG
36) Marilyn Revell Delong, *op. cit.*, p. 79.
37) *Ibid.* p. 88.